

# 文측 “1강 구도 굳어졌다” 安측 “충분히 역전 가능”

## 각당 캠프가 보는 중반 판세

국민의당 통합내각 카드 기대

민주당 “강고한 대세국면 형성”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도 촉각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대선 중반 판세인 '1강(문재인) 1중(안철수) 3약(홍준표·유승민·심상정)' 구도가 막판까지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대선까지 아직 10여일 이상 남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한두 차례 판이 출렁일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호남 민심이 아직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놓고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영남 및 보수 민심이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과거 그 어느 대선보다 유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및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비해 10%p 안팎 차이 밖에 나지 않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비문 정서로 대변되는 숨은 표심 등을 감안하면 문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안 후보 진영에서는 '통합내각' 카드가 판세를 바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집권 후 통합 정부나 협치에 대해 민주당보다 더욱 구체적인 구상을 보여줘 수권능력을 부각한다면, '소수정당 한계론'을 극복하면서 지지율 회복도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역과 진영, 세대를 넘어 국민 통합을 통해 미래로 가자는 메시지는 호남 민심은 물론 영남 및 보수 표심의 막판 결집을 이끌 카드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삼심선대위원장은 이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당내에서 총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라는 외부 변수와 문재인 후보와 관련한 약재 등이 겹치면 10% 차이의 지지율 격차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강고한 대세 국면이 형성됐다는 입장이다.

지금껏 각종 약재와 네거티브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과 전해철 특보단장, 강기정 총괄수석본부장, 백재현 국가재정위원장 등이 25일 광주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



국민의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버티 지지율이라는 점에서 웬만한 변수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판세가 결국 대선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대세론에 의해 비문 표심의 투표율 저조로 이어져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전병헌 전략본부장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2강3약 구도였지만, 이제는 1강1중3약 구도로 판세가 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 아직 강고하게 굳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대선 승리에 취한 모습을 보인다며 반문 표심의 결집으로 이어지면서 막판 초점전 구도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만 이뤄진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확고한 완주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다 보수 후보들만의 단일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폭발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선 판도를 바꾸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유동성이 큰 대선 판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도 40% 내외에 그치고 있어 현재의 판세가 대선 막판까지 유지될 것인지가 장담하기 어렵다”며 “대선 막판까지 여야 주자들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안철수로...非文 단일화 성사만 되면 '해볼만'

### 단일화론 재부상...파괴력은?

대통령 선거를 2주일 앞두고 후보 단일화론이 재부상하면서 단일화 성사시 대선에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현재 제기된 단일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바른정당이 지난 25일 새벽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비문(비문재인) 단일화'와 홍 후보가 이날 언론에 밝힌 자신과 유 후보, 새누리당 조원진, 통

### 보수 대통합은 효과 미미

### 3자 구도뎀 문재인 유리

일한국당 남재준 후보의 '보수 대통합' 구상이다.

일단 이번 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종합하면 보수 단일화보다는 비문 단일화의 파괴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23~24일 전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

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보수후보 단일화가 이뤄져도 문 후보가 2위인 안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유 후보를 뺀 3자 구도에서는 문 후보가 44.3%, 안 후보가 35.3%, 홍 후보가 12.7%를 각각 기록했고, 홍 후보를 뺀 3자 구도에서는 문 후보 43.0%, 안 후보 37.0%, 유 후보 10.3%로 집계됐다. 보수 진영이 홍 후보로 합쳐지든, 유 후보로 합쳐지든 1~2위 격차에는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못한 셈이다.

앞서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남녀 1천3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하지만, 성사 가능성을 떠나 안철수 후보로 비문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되면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칸타퍼블릭 조사에서 둘러본 양자 가상대결에서 문 후보(41.4%)와 안 후보(41.0%)가 0.4%포인트 차이의 초점전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14대 빼고 매번 시도...15대 'DJP 연합' 압권

### 역대 대선 단일화 사례는

5·9 '장미대선'의 막판 변수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역대 대선 단일화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비문(비문재인)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기로 결정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보수 진영 4명의 단일화를 공론화한 것이 그 단초다.

이런 움직임은 아권의 전유물처럼 인식됐던 역대 후보 단일화와는 정반대 양상이다.

주로 보수 정당이 주축이 된 이번 경우와 달리 과거 대선에서는 아권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 13대, DJ·YS 실패로 비난

### 16대, 노무현이 정몽준 이겨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6차례의 대선에서 1992년 14대 대선을 제외하면 민주당 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첫 시도는 87년 13대 대선이었다. 군사 독재를 마감하고 민주정권 탄생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 속에 아권의 유력후보자인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단일화 협상 테이블을 차린 것이다. 결국 두 후보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따로따로 출마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헌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후보 단일화가 결실을 이룬 것은 10년 뒤인 1997년 15대 대선이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를 이끌던 DJ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JP) 총재가 97년 11월 3일 대선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 서명해 'DJP 연합'을 이룬 것이다.

호남과 충청,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은 DJP 연합에 힘입어 DJ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직후인 2002년 16대 대선에서의 단일화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으로 귀결됐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참패와 DJ 아들 비리 등의 약재로 지지율 추락을 면치 못하는 사이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가 한일월드컵 성공개

최를 계기로 주가를 끌어올리자 두 사람 간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다.

2002년 11월 24일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노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대통령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민주당 이진재 후보 사이에서 단일화 논의가 오갔으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격차가 워낙 커 성사되지는 않았다.

직전 대선인 2012년 18대 대선은 민주당 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겪다가 11월 23일 안 후보가 전격 사퇴하는 형식으로 단일화에 성공했다.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www.joytour.kr

# 무안출발 일본여행

이 가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친 특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일본여행  
이제 무안에서 출발하세요

5월 21일, 5월 28일 단 2회!! 선착순 30명!!

4일 299,000원~

- 공통포함사항:편도항공, 편도선박, 현지차량, 일본현지식사
- 불포함사항:기사, 가이드경비(₩30,000/인), 국내수송(₩35,000/인)

美親특가 항공권 (공항세 및 유류세 포함)  
매주 일요일 무안 출발 - 기타큐슈 편도 39,800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JOY TOUR CO.,LTD  
TEL:062-234-3222 FAX: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대표이사 최금환



여행경비1인 기준, 여행저보험 가입,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항공 및 전철 / 상의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보험 가입 / 예약시 계약서(약관)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